



2026

우체국 문화전

접수번호

기입 금지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초등고학년(4~6학년)
제 목	우체통에 넣은 첫 편지

어느 날, 엄마 핸드폰으로 학교 하이클래스에서 우체국 공모전에 대한 메시지가 왔다. “준아야, 우체국 공모전에 한번 나가볼래?” 엄마가 물으셨다. 나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공모전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자 머릿속에 우체국에 대한 일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어린이날에 우체국 택배로 미니카를 선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리고 보니 우체국으로 택배만 받았지, 나는 우체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때 호기심이 생겼다. ‘내가 우리 가족한테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우표를 사서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진짜 우리 집에 올까?’

나는 A4용지 세 장을 꺼내 그림을 그려 나만의 편지지를 만들고, 아빠, 엄마, 형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에게는 항상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나와 놀아주고 장난쳐주셔서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고 썼다. 엄마에게는 실수로 형에게 마사지 불을 던져서 혼났을 때 속상했지만, 그게 다 나를 위한 잔소리라는 걸 안다고 썼다. 형에게는 까불어도 참아주고 놀아주는 형이 제일 좋다고, 요즘 소파에서 잠깐 잠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제 목

힘내라고 썼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체국에 가보았고 우표도 샀다. 편지 세 통을 각각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고 우표를 붙이고, 빨간색 우체통에 쓱 넣었다.

편지가 집으로 올 때까지 나는 가족에게 편지 쓴 것을 말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 형이 각자 편지를 받았을 때 반응을 보고싶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집으로 가던 중에 길옆에 빨간색 우체통을 보니 내가 보낸 편지가 떠올랐다. ‘혹시 오늘은 올까? 나보다 가족들이 먼저 발견해서 놀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1층 회색 편지함을 들춰봤는데, 바로 내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내가 보낸 편지가 진짜 오다니! 너무 신기했다. 가족들이 먼저 발견했으면 더 놀라고 재밌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도 했다.

집으로 들어오니 아무도 없어서 마음이 쓸쓸했다. 엄마와 아빠는 커피숍을 운영하셔서 나보다 항상 늦게 오시고, 중학교 2학년인 형도 학원 때문에 늘 늦게 온다.

그날 저녁, 축스러운 손으로 편지를 엄마와 아빠에게 드렸다.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제 목

“제가 쓴 편지예요.” 부모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뜯어 읽으셨다.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시며 감동스럽다고 하셨다. 아빠는 놀라시며 편지를 다 읽으시더니, 엄마가 받은 편지도 궁금해서 바꿔 읽어보셨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따봉을 날려주셨다. 나중에 온 형은 예상대로 무표정이었다. 아빠, 엄마 꺼는 예쁜데 왜 자기 그림은 이상하냐며 툭툭거렸다. ‘역시 형은 사춘기인가 보다.’

가족들 마다 반응은 달랐지만, 나의 마음이 전해지자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날 미니카를 택배로 받았을 때는 몰랐다. 이번엔 내가 직접 마음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보니 받는 것보다 보내는 사람이 더 두근두근 설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글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다.

오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보낼 편지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한다.

